

# 제2회 여수음악제 성공 개최 준비 분주

### 여수상의, KBS교향악단과 음악학교 오디션 열어 29명 선발 8월 30일~9월 2일 개최...국내 대표 클래식 축제로 육성키로

여수상공회의소가 지역 대표 대규모 클래식 축제로 자리 잡은 '제 2회 여수음악제'의 성공개최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28일 여수상의에 따르면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2회 여수음악제 음악학교 오디션을 최근 성공리에 마쳤다.

앞서 여수상의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여수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KBS교향악단 단원들과 함께하는 제2회 음악학교 학생을 공개 모집했다.

이틀 토대로 지난 19일 지역민의 성원과 함께 지원자 72명을 대상으로 오디션도 성료했다.

5분 자유연주로 진행된 이번 오디션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장추첨을 통해 부여된 번호만 심사위원들에게 공개하고 주요 오디션 내용은 영상에 담아 보관했다.

지역 인재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진행된 오디션 결과 바이올린·비올라·첼로·오보에·클라리넷·트럼펫·플룻·호른 등 8개 파트 29명(초 11명, 중 10명, 고 8명)의 학생이 최종 선발됐다.

학생들은 지난 26일 학부모와 함께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6월~8월말 까지 매주 주말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 음악학교 수업에 전념한다.

음악학교는 여수 지역 음악 인재들이 KBS교향악단 단원들과 함께 연습하고 전·현직 단원들로부터 직접 레슨도 받을 수 있도록 여수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여수음악제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특히 학생들과 KBS교향악단 단원들은 여수음악제 폐막식(9월2일)에 함께 무대에 올라 멋진 협연을 펼치며 지역민에게 뜻깊은 추억도 선물할 예정이다.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하는 여수음악제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GS칼텍스 예술마루와 여수국가산단, 여수명소 등지에서 4일 간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제1회 여수음악제는 3일간 3000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회 음악제에 순천·광양지역 학생들도 참여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여수지역 학생으로 참여를 한정했다.

이처럼 지역 음악 인재들의 요람과 대표 클래식 음악축제로 자리 잡은 여수음악제는 지난해 3억 5000만원의 전체 예산을 모두 마련한 여수상공회의소 중심으로 처음 열릴 수 있었다.

여수 지역 문화 수준을 높이고, 더불어 해양 관광도시로서 문화예술을 선도하는데 클래식 축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역 청소년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연주자와 협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도 담은 것이 주요했다.

지난해 여수음악제 개최를 위해 사재를 출연한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KBS 교향악단 관계자들과 교류를 이어온 점도 음악회 개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여수상의와 여수시는 앞으로 여수음악제를 100년 전통의 통영국제음악제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대관령음악제처럼 '지역' 거점의 대표 클래식 축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민과 경제계,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한 국내 최초 음악제인 만큼 여수음악제가 평창 대관령국제음악제와 통영국제음악제를 잇는 국내 대표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음악학교는 우리지역 음악인재들이 KBS교향악단 단원들에게 직접 레슨을 받고 함께 무대에 오르는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여수음악제의 핵심 사업이다"고 밝혔다.



지역을 대표하는 클래식 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여수음악제가 오는 8월 30일부터 열린다. 지난해 음악제 폐막식과 함께 열린 여수 지역 음악인재와 KBS교향악단의 협연무대. <여수시 제공>

지난 24일 자치인재개발원 연수과정으로 여수시 여천동을 찾은 사무관들이 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여수시 제공>

알려지면서 6월 중에는 포항시 중앙동 자치위원회도 여천동을 방문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여수산단 등 18곳 토양오염 실태 조사

### 여수시 다음달 12일까지

여수시는 다음달 12일까지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주요지점 18곳의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관리기관이 정화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지역은 여수산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원광석 보관지역, 폐기물 처리지역, 교통 관련시설, 토양오염 사고·민원 발생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등도 포함된다.

조사는 대상지역의 표토와 심토 등을 채취해 전문기관인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구리·카드뮴 등 중금속과 석유계총탄화수소 등 21개 항목의 검출여부를 분석한다.

7월부터 9월까지 실시 예정인 분석결과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관련 기관에 정화 조치를 명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매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기준 초과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토양의 정화와 복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무엇보다 오염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꾸준한 오염조사로 정화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어린이 놀이시설 116곳 안전 점검

여수시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에 나선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11월까지 지역 근린공원 22곳과 어린이공원 68곳, 소공원 26곳 등 116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여수 용천 이순신공원 놀이터.

점검대상은 그네와 미끄럼틀, 흔들놀이구,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기구다. 시설은 놀이시설의 연결 상태와 노후화 정도, 변형·결빙 상태, 안전수칙 표시 여부, 위험물질 존재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후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이용금지 조치를 취한 후 정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41곳의 정기검사도 완료했다.

시는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도시공원과 놀이터 등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스마트폰으로 놀이기구별 안전정보, 정기검사 유무 등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목적은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주목받는 여천동 마을공동체 사업

### 자치인재개발원 연수 사무관 20명 방문 벤치마킹

여수시 여천동이 따뜻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사업이 대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여천동에 따르면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연수 중인 사무관 20명이 지난 24일 여천동을 방문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벤치마킹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주민 전체가 참여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여천동의 자치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여천동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자생단체

회원 150여명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다.

주민들은 희망워크숍을 열어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토론회를 통해 해답을 찾고 있다.

또 스스로 희망기금을 만들고 착한가게를 발굴해 이웃을 돕고 있다.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벽화를 조성하고 성산공원에는 직접 시화를 설치하기도 했다.

여천동 마을공동체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난 24일 자치인재개발원 연수과정으로 여수시 여천동을 찾은 사무관들이 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여수시 제공>

알려지면서 6월 중에는 포항시 중앙동 자치위원회도 여천동을 방문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시민 400여명에 원어민 화상학습 기회 제공

### 여수시 내달 1일까지 모집

여수시는 외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시민 400여명에 원어민 화상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다음달 1일까지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선착순 모집)하면 된다.

제3기 원어민 화상학습은 영어와 중국어 2개 과정으로 6월 11일부터 4개월간 진행된다. 학습시간은 월·금요일 오후 3시부터 10시 사이며 수강생이 월·수·금(1일 30분)과 화·목(1일 45분) 과정 중

선택할 수 있다. 학습은 원어민 강사 1명과 학생 5명이 한 그룹을 이뤄 진행된다.

수강생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여수시 시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컴퓨터,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 PC용 카메라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교재비를 제외한 수강료는 시가 전액 지원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원어민 화상학습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영어와 중국어 공부에 희망하는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oticon PEOPLE FIRST

#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오티콘 보청기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 062-364-8800

## 대통령령 제28838호 농업진흥구역

(2018년 5월 1일 시행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연평균 6,000만원)

평안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